

세계석학초청 라운드테이블 “Near Future of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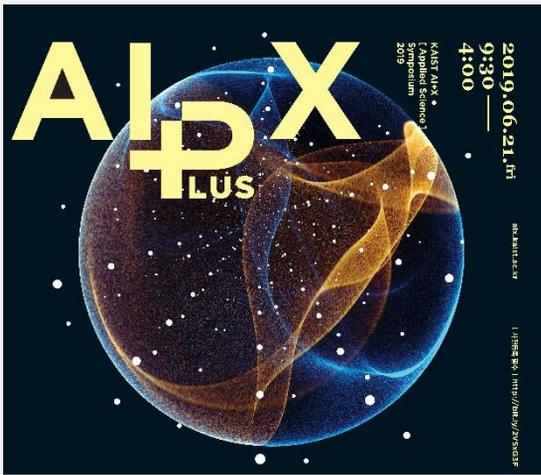
디지털사회과학센터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학세계대회(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에서 세계석학초청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Near Future of Computational Social Science”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 행사에서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회과학분야에 활용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발표자로는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마이클 메이시(Michael Macy) 교수와 아이오와 대학교(The University of Iowa)의 용런 시(Yongren Shi)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메이시 교수는 “Partisan Polarization in Parallel Worlds”라는 제목으로 정치적 사안,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 극화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발표하였으며 시 교수는 “Identity, Growth and Turnover of San Francisco Tech Voluntary Groups”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집단 정체성이 집단의 성장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두 발표에 대하여 강정환(연세대), 이훈(경희대), 하상응(서강대), 이병재(연세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청중의 질문도 이어졌다. 한편 메이시 교수는 주요일간지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도 가졌다. [\(인터뷰 기사: “트럼프처럼 한방향 가는 총탄형 정치, 시류 휩쓸리는 뗏목형 정치, 둘다 문제”\)](#)

Michael Macy 교수, Science에 논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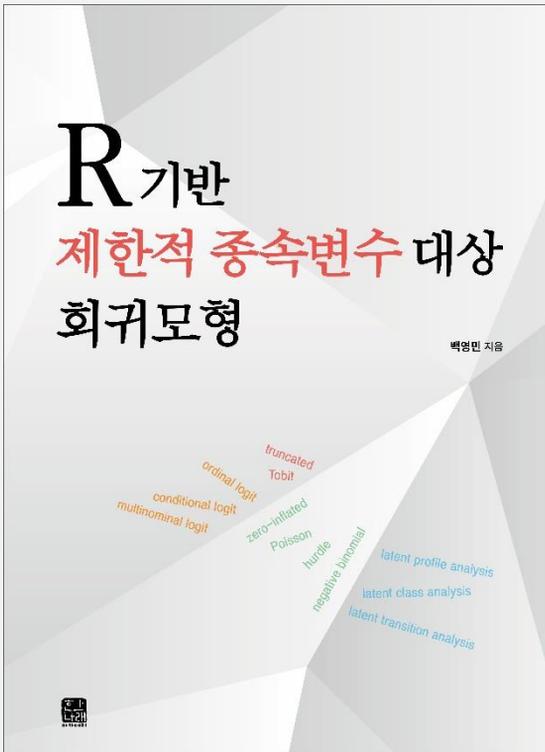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동연구원인 마이클 메이시 교수가 세계 최고의 다학제적 과학저널인 Science에 “The Strength of Long-range Ties in Population-scale Social Networks”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큰 사회적 네트워크에 걸친 장거리 인간관계는 약한 관계인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메이시 교수의 논문은 4개 대륙과 11개 문화권에 걸쳐 5천 6백 만의 트위터 이용자와 5천 8백 만의 휴대전화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장거리 관계가 통념과는 달리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I + X 포럼 “AI + Applied Science” 개최



디지털사회과학센터는 KAIST 전산 학부, 기초과학연구원(IBS: Institute for Basic Science) 등과 함께 AI+X포럼을 개최했다. AI+Applied Science를 주제로 개최된 이 포럼에서는 전산학, 사회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이 정치, 정책, 생명, 예술 등과의 융합이 논의되었다. 본 센터는 이 포럼을 계기로 하여 사회과학과 전산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백영민 교수, 『R기반 제한적 종속변수 대상 회귀모형』 출판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백영민 교수가 『R기반 제한적 종속변수 대상 회귀모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는 제한적 종속변수들을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분석작업들을 R을 통해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토빗 모형, 완전 절단 (truncated) 회귀 모형, 순위/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 포아송 회귀모형 등 제한적 종속변수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다루고 있다. 백영민 교수는 이번에 출간한 도서 외에도 『R를 이용한 사회과학데이터 분석: 기초편, 응용편, 고급편』, 『R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R 기반 데이터 과학: 타이디버스 접근』 등 다수의 R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교재를 집필해왔다

송준모 연구보조원, 차세대 사회과학자 우수논문상 수상



송준모 연구보조원(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이 “청년들은 가부장의 꿈을 꾸는가?: 개방형 문항을 통한 #미투 운동에 대한 태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제6회 차세대사회과학자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제 6 회 차세대사회과학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병재 박사, 대만 Academia Sinica에서 방법론 특강



본 센터의 전임연구원 이병재 박사가 7월 16일 대만의 Academia Sinica의 IPM(Institute of Political Methodology)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IPM은 2001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정치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교육해오고 있다. 올해의 IPM은 인과추론(Causal Inference)를 주제로 열렸다. 이병재 박사는 “Causal Inference and Big Data: Modeling Dynamic Process

Dynamic Treatment Regime”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우리 연구센터와 IPM의 향후 협력 및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한국, 대만, 일본 등의 정치학 전공 대학원생 21명이 참석했다.

사회과학연구(SSK) 대형단계 3년차 연차보고 완료

디지털사회과학센터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형단계 3년차 연구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본 센터는 대형단계 3년간 SSCI/SCI 등 국제저명학술지에 27건, SCIE/SCOPUS 급 학술지에 8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50건 등 85편의 논문과 각각 한 편의 영문, 일문 단행본을 포함한 16건의 저(역)서를 출판했다. 본 센터는 이러한 연구성과 이외에도 디지털사회과학 성과보고회, 포털 뉴스 댓글 문제 토론회 개최 등 사회현안 진단 및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했으며, 데이터분석워크숍을 통해 디지털사회과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임정재 박사(전 연구보조원), 2019년 갤럽 우수논문상 수상

본 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던 임정재 박사(2019년 2월 박사학위취득)가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SNS상의 정치정보 노출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페이스북을 통한 정파적 뉴스 노출과 SNS 중첩이용의 효과”로 한국갤럽 박사학위논문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조사연구학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후원으로 2004년에 제정되어 매년 수여되고 있다. 올해 한국갤럽 박사학위논문상의 심사대상으로 22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접수되었으며, 17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임정재 박사의 수상이 결정되었다.